

[8] 1990년 9월 14일(금요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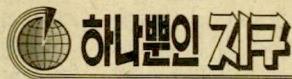
세계기상기구·유엔환경계획 보고서

온실효과 등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과학보고서가 나왔다.

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 주도로 전세계 25개국 과학자들이 2년여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'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(IPCC)' 4차총회에서 공식 채택돼 앞으로 기후협약 제

2039년까지 20cm, 다음 세기말까지 65cm가 될 것이다.

관심의 초점은 서부 남극빙원의 동태이다. 지구의 평균해수면을 5m 높일 수 있는 이 거대한 얼음덩이가 갑자기 녹는다면



스보다 각각 58배, 4천배 효과적이다.

◇인간은 기후변화를 이미 일으키기 시작했다=지난 1백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0.3~0.6℃ 높아졌다.

이는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된 3가지 데이터에서 드러난 것이다. 1900년 이후 온난화는 1910~1940년과 1975년 이후 두 시기에 집중됐다.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다섯해가 모두 1980년대에 나타났다.

지구온난화는 19세기말 이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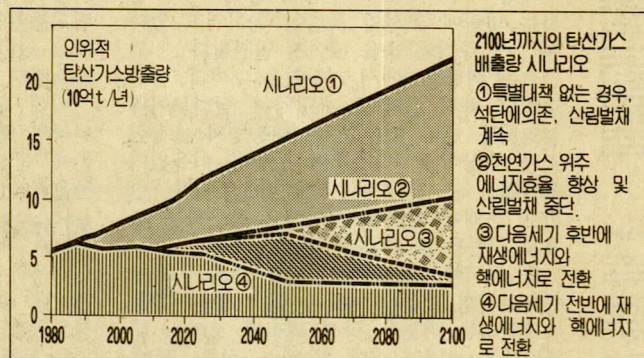
“지구온난화 심각하다”

결을 둘러싼 국제적 교섭의 토대가 된다.

한국대표단(단장 주수영 환경처 대기제도과장)이 이번 회의에서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.

◇지구온난화 예측=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구의 평균온도는 10년에 0.3℃ 꼴로 증가, 2025년에는 지금보다 1℃, 다음 세기말까지는 3℃ 높아질 것이다.

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탄산가스, 염화불화탄소(CFC), 질소산화물은 공기속에서 매우 천천



10년에 0.3℃씩 올라...해수면은 6cm꼴로

히 제거된다. 따라서 이들의 방출수준을 현상태로 동결하더라도 몇십년 동안은 10년에 0.2℃ 꼴로 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.

다음 세기 중반까지 인류는 지난 15만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높은 지구온도를 경험할 것이다.

◇해수면 상승 정도=해수의 열팽창과 빙하가 녹음에 따라 해수면은 다음 세기 동안 10년에 6cm꼴로 높아진다. 상승폭은

해수면 상승폭은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.

◇온실가스의 기여도=18세기 중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온실가스의 양은 탄산가스로 쳐 50% 늘어났다. 지난 80년대에 온실효과 기여도는 탄산가스가 가장 많은 55%이고, CFC11과 CFC12 17%, 메탄 15%, 다른 CFC 7%, 질소산화물 6% 등이다.

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 메탄과 CFC11은 같은 양의 탄산가

세계 대부분의 빙하가 후퇴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수면이 연평균 1~2mm씩 높아진 데서도 입증된다.

◇과학적 불확실성=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구름, 바다, 온실가스, 극지방 얼음 등이다. 구름의 생성과 소멸, 바다와 대기의 열교환, 온실가스의 대기속 화학반응, 극지방 얼음이 해수면에 끼치는 영향 등에 연구가 집중돼야 한다.